

광주 30대 취업자 상승률 두 달째 10% 웃돌아

●호남통계청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

전년비 1만5천명 ↑ ...전체 취업자 수보다 1천명 많아 코로나 기간 고용감소 기저효과·공공일자리 확대 영향

광주 30대 취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광주 30대 취업자 증가는 전 연령대 취업자 증가분을 뛰어넘으며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견인했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4천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p) 상승

한 59.9%였다.

지난달 광주 취업자 증가분은 올해 들어 최소 규모로 특히 4월(2만6천명) 대비로는 1만2천명 감소했다.

지난달 광주 취업자의 연령대를 들여다보면 30대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수를 뛰어넘으며 선전했다.

광주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13만1천명) 대비 11.2%(1만5천명) 증가한 14만6천명으로, 전체 연령대 취업자 증가분(1만4천명)보다 1천명 많았다.

앞서 광주 30대 취업자 수는 2019년 7

월 전년 동월 대비 1천명 줄어들며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22년 7월까지 3년 간 내리 감소세가 이어지다 같은 해 8월 증가로 전환했다.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4월(10.2%)에 이어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증가율이 10%를 상회했다.

특히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노인 공공근로 확대 영향 속 취업자 증가분의 대다수를 50·60대 이상이 차지했던 것과 달리 30대 경제 허리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면서 실질적인 고용이 증가하

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50대 취업자는 22%(4천명), 60세 이상 취업자는 5.0%(7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광주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8천명·5.8%), 농림어업(5천명·29.9%)에서 증가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수출 부진, 건설경기 악화 속 도소매·숙박·음식점업(-5천명·-2.9%), 광공업(-3천명·-2.3%), 건설업(-1천명·-1.6%) 등은 취업자가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1만5천명·1

1.7%), 관리자·전문가(7천명·4.3%), 농림어업숙련종사자(4천명·24.2%)에서 취업자가 늘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1만1천명·-4.2%), 서비스·판매종사자(-100명·-0.1%)은 줄어들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30대 취업자가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의 확대에 힘입어 30대 취업자 증가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서원 기자



광주은행은 최근 수신, 여신, 자산관리 등 총 14개 부문에 대한 2023년 전반기 '광은명장' 40명을 선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전반기 '광은명장' 시상

총 40명 선정...직원 사기진작·영업력 강화 기대

광주은행은 '광은명장제도'를 통해 선정된 2023년 전반기 '광은명장' 대상자 총 40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하며 영업력이 우수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신뢰성 있는 지수로 평가하는 '광은명장제도'는 수신, 여신, 자산관리 등 총 14개 부문의 명장들을 선정해 포상 및 격려하는 제도로써, 2021년부터 매년 2회 실시하는 광주은행의 대표적인 포상제도이다.

이 제도는 급변하는 영업환경 속에

서 고군분투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의 경쟁력 확보와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직원들의 영업동기 불입 조정과 긍정적 영업문화 확산을 위해 2개월 단위로 'Pre(예비) 명장'을 선정해 각 부문별 명장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노사간 오랜 시간 협의를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직원간 과열 경쟁이 아닌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하는 광주은행만의 특색있는 영업문화로 정착됐으며, 갈등과 반복의 노사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광주은행 조직문화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전반기 '광은명장'으로 선정된 직원들을 시상하며 "광은명장제도가 당행의 특색있는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줘 감사하다"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금융환경 속에서도 광주은행이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내실있는 질적성장이 필요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채만 기자

롯데케미칼 자회사 삼박LFT 울춘산단에 컴파운딩 공장 건설

2025년 하반기 가동 목표

롯데케미칼 자회사인 삼박LFT(주)가 전남 울춘산단 내 신규 컴파운딩 공장을 건설한다.

14일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삼박LFT(주)는 울춘1산단 2만6천871㎡(7만4천678평)에 총 4천500억원을 투자해 1단계 기능성 첨단소재 제조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 순천시,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5월 부지 구매를 완료했다.



삼박LFT는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 올해 공장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컴파운드 사업 확대와 건자재 생산 사업 추가로 글로벌 종합 소재 생산 전문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ABS, PC 등 컴파운딩 소재를 60만t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인조 대리석과 이스톤 등 건자재 생산 능력을 85만t까지 늘려 국내 최대의 생산 규모를 확보할 예정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전력거래소·APEC기후센터, 에너지기상 업무협약

기후 대응 역량 강화 국가전력망 안정 도모

전력거래소와 APEC기후센터는 '에너지기상 및 기후변화 대응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력거래소와 APEC기후센터가 에너지와 기상을 융합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력거래소와 APEC기후센터는 금번 협약을 계기로 ▲기후예측정보 활용을 통한 에너지 안보 대응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내·외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협력 ▲학술세미나·워크숍 공동 개최 추진을 통해 관련 노후유를 공유키로 했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APEC기후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기(동·하계, 월간, 연간) 전력수요전망 방법론 고도화, 전력계통 위험기상요인의 실시간 탐지 능력 향상, 기상변동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정확도 향상 기술개발 등 에너지기상 업무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허성일 수요예측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향후 양 기관 간 에너지 기상분야와 관련된 실무협력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전환기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기량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시간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